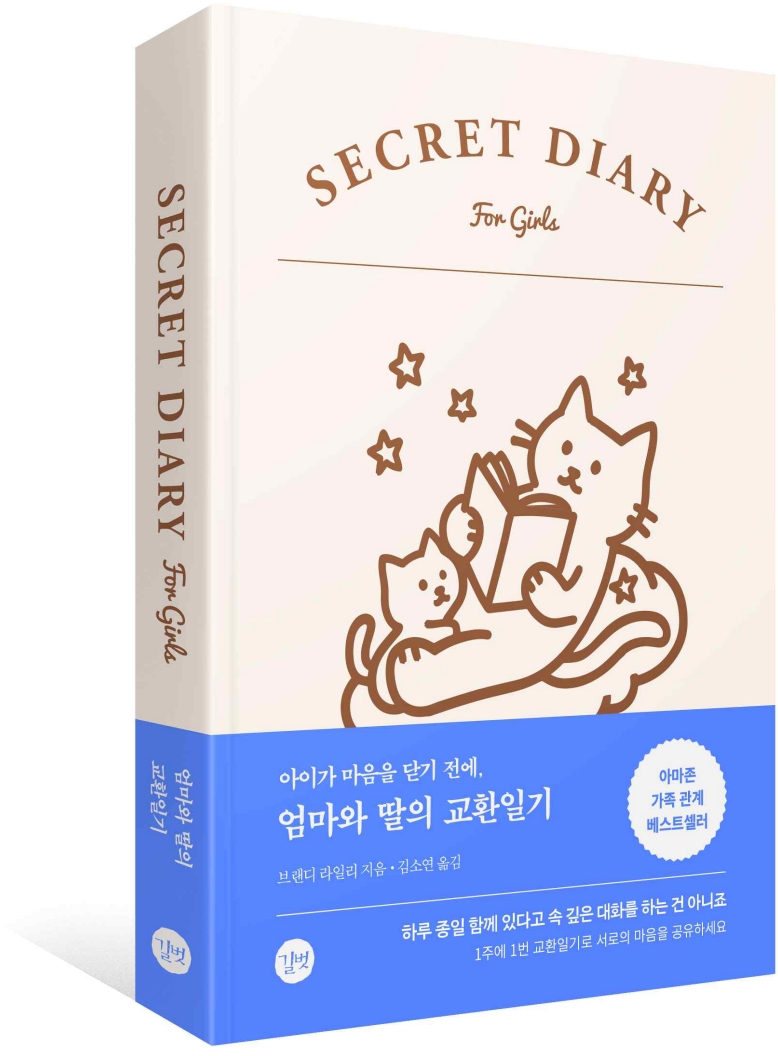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38-0388 홈페이지 www.gilbut.co.kr
담당자 길벗단행본3팀 황지영 02-330-9829 jyhwang@gilbut.co.kr

(부제) 아이가 마음을 닫기 전에,

엄마와 딸의 교환일기 - 개정판

(원제: Just us Girls)



지은이 | 브랜디 라일리 **옮긴이** | 김소연 **발행일** | 2026.11.11. **분야** | 자녀교육 **판형** | 132x194
형태 | 양장 **페이지** | 188쪽 **정가** | 18,800원 **ISBN** | 979-11-407-2106-1 (13190)

책 소개

*** 아마존 가족관계 베스트셀러**
*** 별점 10점, 독자 강력 추천 도서!**

엄마는 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이래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교환일기를 만들었어요.

처음 딸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딸에게 진짜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지. 힘든 일은 툭툭 털어낼 수 있게 지켜주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하지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녀 관계는, 어느 한쪽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 신뢰를 필요로 하지요. 그건 오랜 시간 수많은 대화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대화의 창은 무제한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세요. 엄마와 딱히 사이가 나쁘지 않았더라도 정작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긴 힘들지 않았나요? '엄마는 이해 못 해줄 것 같아.' '엄마가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 앞에서는 늘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행동하지 않았나요? 또한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요즘 뭐가 가장 힘들어?' '네가 가장 즐거운 시간은 뭐야?' 같은 마음을 묻는 질문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숙제 다했어?' '학원 늦겠다!' '어서 씻고 자!' 같은 지시형 대화만 하루를 채우곤 하지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큰데 그 마음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사람이래요. 《엄마와 딸의 교환일기》의 저자는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고, 그런 관계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과의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교환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딸과 교환일기를 쓴 끝에 서로를 깊은 관계로 이끄는 대화 주제를 찾았고, 그것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녀가 되고 싶다면
1주일에 1번 교환일기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세요

《엄마와 딸의 교환일기》는 엄마와 딸이 1년간 대화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환일기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시작하려면 어색하겠지요? 교환일기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일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노트의 빈칸이 너무 끝없어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대화를 나눠야 속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지도 막막하고요.

이 책에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들어 있어요. 책 속 질문들은 단순히 서로

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딸이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질문, 자신을 보다 섬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질문 등 다양한 층위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어요. 물론 간단한 문답형으로 서로의 취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볍고 재밌는 질문들도 있지요! 엄마와 딸이 번갈아 1페이지씩 일기를 작성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1년간 교환일기를 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글 쓰는 실력이 느는 건 아주 큰 덤이겠죠?)

이 책의 특별한 점

1. 엄마와 딸이 번갈아 1페이지씩 일기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2. 1주일에 1~2회 쓰는 분량으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3. 각 페이지마다 1~6개의 문항이 있어서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4. 질문은 서로의 취향, 꿈, 포부, 가치관, 삶의 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로 이끌어줘요.
5. 아이는 질문을 읽고, 마음을 문장으로 정리해 상대에게 전달하는 연습도 할 수 있죠.
6. 실로 꿰맨 양장 제본으로 여러 번 펼쳐도 튼튼해요. 또한 가름끈을 넣어 사용 편의성을 높였어요.

저자 소개

지은이 브랜디 라일리 (Brandi Riley)

딸을 이해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쏟는 작가. 많은 엄마들이 딸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MamaKnowsItAll.com을 개설해 딸과 교감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다양한 매체에 글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엄마에게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육아와 이로 인한 경력 단절 이후 복직, 연봉협상까지 모든 활동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여성운동단체 'Courage to Earn'의 설립자로서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균형을 찾도록 지원 중이다.

옮긴이 김소연

연세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으며, 삼성전자 해외 마케팅팀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다. 현재는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갤럭틱의 대표로, 다양한 콘텐츠 번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차례

프롤로그_다이어리를 선택한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
교환일기를 쓰기 전에
이 일기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
MONTH ONE
MONTH TWO
MONTH THREE
MONTH FOUR
MONTH FIVE
MONTH SIX
MONTH SEVEN
MONTH EIGHT
MONTH NINE
MONTH TEN
MONTH ELEVEN
MONTH TWELVE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
마치며
엄마의 에필로그
딸의 에필로그